백승종 〈미시사 I – 한국사를 써 내려간 리더십〉 1강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374~412, 재위 391~412)

1. 왕 중의 왕, 고구려의 제19대 광개토대왕: 왕의 이름은 담덕(談德), 고국양왕의 아들. 묘호(廟號)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줄여서 광개토태왕(廣開土太王), 호태왕(好太王)으로 부른다. 생전에는 영락대왕(永樂大王)이라 불렸다. '영락(永樂)'은 고구려 최초의 연호였다. 왕은 18세의 젊은 나이에 즉위해 수년 간 정복전쟁을 수행하였다. 북으로 연 나라, 남으로 백제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국력을 과시했다. 숙신과 동부여마저 그 위력 앞에 떨었다. 그가 이룬 고구려의 강성함은 아들 장수왕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한다.

2. 고구려의 영광은 광개토왕비의 비문으로 남았다. 39세로 마감한 짧은 생애에 그가 이룩한 위업은 알렉산더 대왕과 견줄만하다.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자 백성이 모두 생업에 힘쓰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풍족해졌으며, 온갖 곡식이 가득 익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나 보다. 39세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었다." ('광개토대왕비문'에서)

내용도 풍부하고 문체도 웅혼한 광개토왕비. 중국 집안(集安)에 있다. 5세기 당대 최고 문장가가 심혈을 기울여 지은 것. 역사학자 민영규는, "무서운 문장력이다. 어느 한 구절, 전후 사방으로 치밀하게 그 역학관계가 계산되지 않은 구석이 없다."라고 칭송하였다. 장수왕 3년(414년)에 건립되었다. 왕의 사후 2년 뒤였다. 비석의 높이 6.39미터, 글자는 모두 1,775자(150여 자는 판독이 불가)

비문에는 고구려의 자신감이 가득하고 고양된 역사의식이 깔려 있다. 비문의 글씨도 비범하다. 서예가 김응현은 이 비문의 글씨체를 본떠 '호태왕비체'를 창안했다.

광개토대왕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백제와 신라는 옛적부터 고구려에 조공을 바쳐왔다. 신묘년에 왜 나라가 쳐들어오자,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가 왜를 쳐부쉈다. 그런데 백제가 왜와 (연합하여 신라로 쳐들어가)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려 했다. 6년 곧 병신년에 왕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다."

원문으로는 44자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3자가 지워져 있다. '백잔□□□라(百殘□□□羅)'라는 부분이다. 세 글자를 추측하여 번역하면 위 인용문의 괄호 부분과 같다. 백잔(百殘)은 백제를 낮추어 부른 말이고, 마지막 라(羅)는 그 앞에 신(新)을 넣어 신라가 된다. 나머지 두 자는 연(連)과 침(侵)이다. '연합하여 신라를 쳤다'는 뜻이다. 이렇게 글자를 채워 넣은 이는 정인보 선생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은, "신묘년에 왜 나라가 쳐들어오자,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가 왜를 쳐부쉈다. 그런데 백제가 왜와 (연합하여 신라로 쳐들어가)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려 했다."는 대목을 "신묘년에 왜 나라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치고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번역하였다. 일본이 김해 지역을 식민 통치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입증하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즉위년(신묘년, 391)에 해전에서 왜를 무찔렀다. 그러자 왜가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쳤다. 광개토대왕은 제위 6년(병신년 396) 신라를 돕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토벌했다. 이것은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군인을 보내 비문에서 세 글자를 없애버렸다는 소문이 있다. 어찌됐건 정인보는 본래의 글자를 추정하여, 국내학계는 이를 정설로 인정한다.

3. 고구려의 역사의식. 광개토대왕 비문은 동명성왕 주몽의 전설로 시작한다. 주몽을 '천제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광개토대왕도 천제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광개토왕 이전에는 고구려 왕릉에 비석이 없었다.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왕은 선대왕들을 위해 묘 마다 비석을 세웠다. 또한 지키는 사람을 일일이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였다.

"묘를 지키는 이는 이제부터 서로 팔아 넘겨서는 안 되고, 부유한 이라 할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묘를 지키도록 하라."

4. 광개토대왕의 시대: 소수림왕 4년(374) 출생. "나면서부터 허우대가 컸으며 뛰어나고 활달한 뜻이 있었다."(삼국사기) 소수림왕은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로 고구려를 반석에 올려놓았다. 소수림왕에게 아들이 없어 동생 고국양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 왕 3년(386)에 광개토왕은 12세의 나이로 태자가 되었다.

광개토대왕의 활약은 두 가지. (가) 백제와의 치열한 영토전쟁, (나) 중국 후연(後燕)과의 다툼. 즉위하자 곧 백제의 10개 성을 공략했고, 처음 4년 동안 해마다 백제와 전쟁을 치러 한강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

392년 4만 병력을 거느리고 석현성(石峴城 : 開?郡 北面 靑石洞)을 비롯한 10개성을 빼앗았다.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자랑하던 관미성(關彌城 : 예성강 하류설, 江華 喬桐島설 등이 있음.)을 불과 20여 일 만에 함락시키기도 하였다.

394년에는 백제의 반격을 받자 수곡성(水谷城 : 지금의 新溪)에서 격퇴하였다. 395년에는 패수(浿水 : 지금의 禮成江)에서 또 격퇴하였고, 백제와의 접경에 7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어서 396년에는 한강 너머에까지 진격하여 58성 700촌락을 공파했다. 이때는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공략해, 백제의 아신왕으로부터 많은 전리품과 함께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다는 맹세를 받고 왕제(王弟)와 대신 10인을 볼모로 삼아 개선하였다. 이로써 한강 이북과 예성강 이동의 땅을 차지하였다.

재위 9년부터는 후연과 전쟁을 계속했다. 초기에는 후연의 왕 모용성(慕容盛)이 우세한 군사력으로 승기를 잡았으나, 광개토왕 11년 이후에는 전세가 역전되었다. 402년에는 요하를 건너 멀리 평주(平州)의 중심지인 숙군성(宿軍城)을 공격, 평주자사(平州刺史) 모용귀(慕容歸)를 도망치게 했고, 404년에도 후연을 공격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요동성(遼東城 : 지금의 遼陽)을 비롯한 요하(遼河) 이동 지역을 차지했다. 후연왕 모용희(慕容熙)가 405년 요동성을 침입하고 406년에는 목저성(木抵城 : 지금의 木奇)을 공격해왔으나 모두 격퇴하였다. 이를 통해 광개토왕은 요하 이동 지역을 장악하였다.

광개토왕은 중국 산동성에 있던 남연(南燕)의 왕 모용초(慕容超)에게 천리마 등을 보내 외교적 접근을 꾀했다. 후연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일환이었다. 광개토왕의 서방 진출은 408년 후연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북연(北燕)과 우호관계를 맺음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 해 즉 재위18년(408)째 왕자 거련(巨連)을 태자로 삼았다. 장차 장수왕이 될 왕자였다.

5. 빛나는 고구려의 5세기: 고구려가 백제와의 전쟁에서 이겨 영토를 확장한 사실은 〈삼국사기〉에도 나온다. 비문에도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군데 보인다. 이 밖에도 백제와 왜가 연합하여 신라를 괴롭히자 광개토왕이 신라를 여러 차례 구원하였다. 고구려는 백제를 치기 전에 우선 신라와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비문에 따르면, 가령 399년에도 신라왕은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였다. 내물왕의 요청을 받고, "왕은 은혜롭고 자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갸륵히 여기고,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왕의 계획을 돌아

가 알리게 하였다. 다음 해, 곧 경자년(400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을 합쳐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하게 하였다. 신라에 이르자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고구려군을 보자 멀리 물러났다."(비문)

신라와는 하슬라(何瑟羅)를 경계로 삼았다. 또 410년에는 동예(東濊)를 통합하는데 성공했다.

숙신과 동부여를 친 일도 비문에만 기록된 사실이다. "영락 8년, 곧 무술년(398년)에 숙신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녀 3백여 명을 잡아왔다. 이후로 숙신은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다." 또한, "영락 20년, 곧 경술년(410년)이었다.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 않았다. 왕이 몸소 군대를 끌고 가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부여성에 이르자, 동부여의 온 나라가 놀라 두려워하며 (항복하였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개선하였다." 동부여(東夫餘)를 정벌할 때 64성을 공파함으로써 동부여가 완전히 고구려의 판도 안에 들게 되었다.

왕은 재위기간 중 64성과 1,400촌락을 공파했다. 고구려의 영역은 크게 팽창되어 서로는 요하, 북으로는 개원(開原)에서 영안(寧安?), 동으로는 혼춘(琿春), 남으로는 임진강 유역에 이르렀다. 내정에도 힘써 장사(長史)·사마(司馬)·참군(參軍) 등 중앙 관직을 신설했으며, 역대 왕릉의 보호를 위해 수묘인(守墓人) 제도를 재정비했다.

또한 393년에는 평양에 9사(寺)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장려하였고, 장수왕 때 단행되는 평양 천도의 발판을 마련했다. 광개토왕 때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했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비문) 외교와 정복사업 및 내정의 각 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된다. 왕은 고구려가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기를 갈망해 연호를 영락이라 하였다고 믿어진다. 사망 연도가 비문에는 412년, 〈삼국사기〉에는 413년으로 일 년의 차이를 보인다. 왕능도 분명치 않아 장군총(將軍塚)설과 태왕릉(太王陵)설이 있다.

[광개토대왕 연표]

391년 광개토대왕 즉위

392년 백제 공격하여 10성 함락,

거란을 정벌하여 500여 명을 포로로 함

393년 백제가 침입하자 이를 격퇴,

평양에 9사(寺) 창건하여 불교 장려함

394년 백제와 수곡성(水谷城) 아래에서 싸워 승리,

남쪽에 7성을 쌓음

395년 백제와 패수(浿水)에서 싸워 승리, 비려(碑麗) 정벌

396년 백제 공격하여 58성 차지,

백제 아신왕의 동생과 대신을 인질로 잡아 옴

397년 후연의 요동성을 점령함

398년 숙신을 정벌함

399년 백제· 왜 연합군 신라 침입,

신라가 고구려에 구원 요청

400년 백제·가야·왜 연합군 격파

402년 후연의 숙군성(宿軍城)을 침

403년 후연을 공격함

404년 대방(帶方)에 침입한 백제·왜 연합군을 전멸함

405년 요동성(遼東城)을 공격한 후연의 모용희 군대를 격퇴

406년 목저성(木抵城)을 공격한 후연의 모용희 군대를 격퇴

410년 동부여를 통합함

413년 광개토대왕 죽음